

처음부터 그들은 가장 상처 입은 사람들, 즉 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헤어 나올 수 없는 절망과 좌절의 늪에 갇혀 있거나, 빈곤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사람들의 고통과 괴로움은 결국 구세군이 조직화된 사회선교사업을 시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사람들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였습니다.

